고진영·김효주·양희영…LPGA 혼다 타일랜드 출격

내일부터 태국서 나흘간 진행
신인왕 유해란·김세영 등도 출전

한국 여자골프 최강 멤버들이 4주 만에 재개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 출전한다.

22일부터 나흘간 태국 촌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 올드 코스(파72·6576야드)에서 총상금 170만 달러(약 22억7000만원)를 걸고 열리는 이번 주 대회는 LPGA 투어의 '아시안 스윙'을 알리는 첫 번째 대회다.

LPGA 투어는 이번 주 태국 대회를 시작으로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싱가포르), 블루베이 LPGA(중국)로 이어진다.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에는 한국의 톱랭커 고진영과 김효주가 출전한다.

고진영은 작년 11월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챔피언십에 출전했다가 기권한 이후 3개월여 만에 LPGA 투어에 출전한다.

지난 시즌 부상에 시달렸던 고진영이 어느 정도 회복했을지 주목된다.

김효주 또한 작년 투어챔피언십 이후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정규대회에서 골프 클럽을 잡았다.

양희영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을 포함해 2주 연속 출전한다.

양희영은 2006년 시작된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2015년과 2017년, 2019년 정상에 올라 이 대회 최다 우승자이기도 하다.

세계 여자골프 랭킹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인 고진영(6위)을 비롯해 김효주(9위), 양희영(15위)이 함께 출전해 이들 간의 순위 경쟁도 관심을 끈다.

이 밖에 2023시즌 LPGA 신인왕 유해란을 비롯해 김아림, 최혜진, 김세영, 지은희, 이미향도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과 대결할 최강자는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릴리아 부(미국)다.

부는 지난해 이 대회와 2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포함해 4승을 올리며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부와 똑같이 4승을 올리며 1인자 경쟁을 벌였던 셀린 부티에(프랑스·세계랭킹 3위), 지난주 사우디 대회에서 우승한 패티 타와타나낏(태국)도 출전해 팽팽한 접전을 펼친다.

모두 72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컷 탈락 없이 72홀 승부로 우승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아이스클라이밍 이영건, 캐나다 애드먼턴 월드챔피언십 금

리드부문 결승서 유일 완등
신운선도 여자부 금메달 획득

아이스클라이밍 이영건(전남향군산악회)이 UIAA 애드먼턴 월드챔피언십에서 신운선(서울노스페이스클라이밍)과 남녀부 동반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영건은 지난 16~18일 캐나다 애드먼턴에서 열린 '2024 UIAA 애드먼턴 월드챔피언십' 남자부 리드부문에서 결승에 진출한 8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19mx27m 크기의 구조물을 여유있게 완등하며 1위에 올랐다.

미국의 키난 그리스콤(21.0점)은 남자부 리드 부문 은메달을, 스위스 벤자민 보사드(17.0점)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이영건의 뒤를 이었다.

신운선은 여자부 리드 부분에서 23.0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예선과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신운선은 결승에서도 선두 자리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여자부 리드 은메달과 동메달은 스위스의 시나 괴츠(22.1점)와 프란체스카 쇤바츨러(20.1점)가 각각 차지했다.

신운선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지난 1월 열린 청송 월드컵과 스위스 사스페 월드컵까지 올해 세 차례 치러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했다.

월드컵 3차 대회 겸 세계선수권대회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가 보여준 활약으로 한국은 총점 244점을 얻으며 애드먼턴 대회 팀랭킹 1위에 올랐다.

또, 이번 대회로 이영건과 신운선은 이번 시즌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종목 남녀부 세계랭킹 1위에 나란히 자리하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아이스클라이밍 이영건이 'UIAA 애드먼턴 월드챔피언십' 리드 부문 경기에서 마지막 홀드에 바일을 걸고 있다. 〈UIAA 아이스클라이밍 제공〉

SINCE 1952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피겨 주월초 문승현, 동계체전 동메달

동계체전서 2연속 메달 획득

광주대표 문승현(주월초 5)이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전국동계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그는 2년 연속 동계체전 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승현은 20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대회 피겨 사전경기 12세 이하부 싱글 D조에서 34.01점을 획득하며, 황규진(39.23점·서울 성서초 5), 김현우(36.60점·경기 문원초 6)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문승현이 더욱 눈길을 끄는 점은 동계체육 불모지인 광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형제 선수'라는 사실이다. 한 살 터울 형인 문승영(주월초 6)은 지난 4일 사전경기로 개최된 쇼트트랙 남자 12세 이하부 2000m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사전경기 기간에 열린 빙상 경기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스피드에서 금메달1·은메달2, 쇼트트랙에서 동메달2, 그리고 이번 피겨에서까지 동메달1개를 획득하며 총 6개의 메달을 챙겼다.

광주시 선수단은 오는 22~25일까지 열리는 동계체전 본경기에서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스키, 아이스하키, 산악 등 5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반등' 필요한 이경훈·김성현, 23일부터 PGA 멕시코 원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이경훈과 김성현은 올해 들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2021년과 2022년 AT&T 바이런 넬슨 2연패를 이룬 이경훈은 올해 4차례 대회에 출전해 두 번 컷 탈락했다. 최고 성적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25위.

톱10 입상은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공동 7위 이후 넉 달째 맛보지 못했다.

페덱스컵 랭킹 98위에 자리한 이경훈에게는 반등이 요긴하다.

올해 PGA 투어 두 번째 시즌을 맞은 김성현 역시 올해 들어 5번 경기에 나섰는데 피닉스오픈 공동 28위가 최고 순위다. 한 번도 25위 이내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김성현도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 치러진 서부 지역 대회 '웨스트 코스트 스윙'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이경훈과 김성현은 3월 '플로리다 스윙'을 앞두고 멕시코 원정에서 반등을 노린다.

둘은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멕시코 누에보 바야르타의 비단타 바야르타 골프 코스(파71)에서 열리는 PGA 투어 멕시코 오픈(총상금 810만 달러)에 출전한다.

총상금 2천만 달러의 특급 지정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마친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결장하기에 이번 시즌 톱10 진입에 목마른 이경훈과 김성현에게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는 한명도 출전하지 않는다.

디펜딩 챔피언 토니 피나우(미국)가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24위)이 가장 높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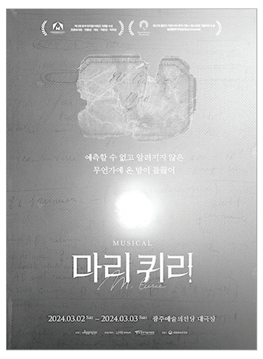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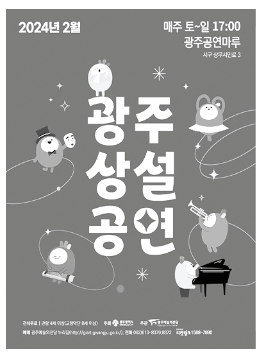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웡카
2관	시민덕희
3관	건국전쟁
4관	시민덕희
5관	웡카,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애프터: 유혹의 끝
6관	웡카, 애프터: 유혹의 끝
9관	도그데이즈
7관씨네커플	소풍, 서울의 봄
8관씨네커플	[20주년특가]이프 온리, 바튼 아카데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2월)
일시 : 2024-02-03(토) ~ 2024-02-25(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